

전일동향

전일대비 7.60원 하락한 1446.50원에 마감

29일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 대비 1,462.50(15:30 기준) 7.50원 하락한 1,455.00(06:00 기준)에 개장했다. 환율은 SK하이닉스의 ADR 관련 환전에 이어 월말 네고 물량이 쏟아지자 전일대비 7.60원 하락한 1446.50원에 종가(06:00 기준)를 기록했다. 주간 장중 변동 폭은 17.30원이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 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890.26이다.

전일환율변동	구분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환율 (매매기준율)
	달러	1455.00	1457.80	1440.50	1446.50	1450.10
	엔화	894.60	895.53	880.87	890.26	-
	유로화	1660.60	1669.66	1645.00	1659.79	-
* 시가/고가/저가/종가 : 달러는 익일 06:00 기준, 엔화 및 유로화는 15:30 기준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0.03	-1.92	-5.57	-12.98
	결제환율(수입)	0	-0.95	-3.49	-9.48
*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					
*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https://www.ksure.or.kr/rh-fx/index.do) 확인					

금일 전망

글로벌 달러 약세에...1,440원대 중심 등락 전망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0.60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1,446.70, 15:30 기준) 대비 4.60원 하락한 1,441.5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

금일 환율은 연준 금리 동결, 9월 인상 기대 축소가 촉발한 달러 약세를 쫓아 하락 전망한다. 간밤 미국 7월 FOMC에서는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3.50~3.75%로 동결했다. 연준이 물가 안정에 초점을 두겠다는 입장을 강조했으나 7월 인상까지 내다보던 시장은 9월 인상 확률을 절반으로 축소하며 글로벌 달러 약세를 유발했다. 이에 달러 인덱스는 0.59% 하락한 100.81pt를 기록했고, 미국 2년 국채금리는 2.7bp 하락했다. 이에 오늘 아시아 통화는 대부분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국내 수출업체 추격매도를 유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원화가 코스피 하락에 전혀 반응하지 않음으로써 금일 달러/원 환율은 글로벌 약달러를 쫓아 하락압력 확대에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간 대기중이던 수입업체 결제수요 등 저가 매수세 유입과 미-이란 갈등 격화 우려에 따른 위험자산 회피 심리는 하단 지지할 요인으로 판단된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437.25 ~ 1448.75 원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12502.17 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4.60원 ↓
	■ 美 다우지수 : 51594.14, -1153.18p(-2.19%)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207.82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6867 억원

※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